

2024년 6월 17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시장의 무게중심 변화 구간

한국 증시는 1)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 2) 주요 연준 인사 발언, 3) RBA, BOE 통화정책회의, 4) 오라클 등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실적, 5) 유럽의 정치 노이즈 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700~2,800pt).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극우 정당(RN)이 약진한 가운데, 6월 30일 조기 선거를 앞둔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도 단기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 물론 그 동안 프랑스 등 유럽 증시의 방향성이 미국, 한국 등 여타 증시의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기는 했음. 다만, (한국은 오른 게 별로 없기에 고점 부담이 미미하지만), 미국, 대만 등 신고가 경신 행진으로 단기 고점 및 속도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증시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신경 쓰이는 부분. 결국, 이번주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발 정치 이슈 포함 금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치르면서 그 부담을 소화해 나갈 전망이다. 그 과정 속에서 주요국 증시 간에도 키 맞추기 성격의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연
jeehyun12@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4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무난했던 FOMC, CPI 에 이어 PPI 예상치 하회, 고용지표 둔화되며 시장금리 4.2% 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AI, 화장품, 음식료 등 개별업종 강세 이어지며 상승 (KOSPI +1.31%, KOSDAQ -0.46%)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미국 금리 급등, 원/달러 환율 상승 미 5월 CPI 및 FOMC 경계심리에도, AI, 화장품, 음식료 등 업종간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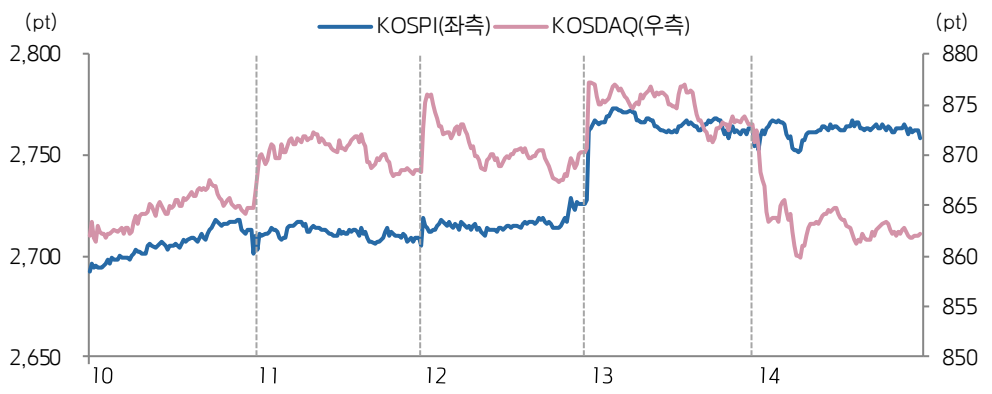
5월 CPI 예상치 하회 + 중립적인 수준이었던 6월 FOMC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 5월 CPI 헤드라인 YOY 3.3% (예상 3.4%, 전월 3.4%), 코어 3.4% (예상 3.5%, 전월 3.6%) 모두 예상치 하회. 특히 슈퍼코어 CPI는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MOM -0.045% 감소. 6월 FOMC의 경우 점도표 인하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은 유지, 파월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금리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 등 기존 worst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향은 제한적.

CPI 발표 직후 10년물 금리는 4.2%대까지 급락했으나 FOMC 진행되며 4.3%대까지 소폭 반등, Fed Watch 9월 25bp 인하 확률은 56.7%로 상승.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을 보수적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한 점에서 매파로서의 연준 행보가 정점에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장에서는 이미 5월부터 6월 FOMC가 매파적일 것이라는 전망 선반영 등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국내증시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장후반 선물옵션등시만기일 영향에 변동성 확대되며 상승폭 축소. 14일(금)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이차전지주 급락에 코스닥은 급락 마감.

업종별로 음식료품(+11.92%), 기계(+6.45%), 전기가스업(+5.88%), 유통업(+4.23%), 운수장비(+2.441%) 강세, 의약품(-3.1%), 운수창고(-2.6%), 증권(-2.57%), 섬유 의복(-2.52%), 철강금속(-2.22%) 약세.

외인(+2조 2,969억원)은 전기전자(+1조 8,678억원), 운수장비(+3,611억원), 기계(+1,603억원), 금융업(+1,160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1조 2,491억원)은 화학(+1,664억원), 기계(+998억원), 운수장비(+741억원), 음식료품(+534억원)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월 17일	월	중국	고정자산투자 (YoY)	5월	4.2%	4.2%
		산업생산 (YoY)	5월	6.0%	6.7%	
		소매판매 (YoY)	5월	3.0%	2.3%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태이트 제조업지수	6월	-13.0	-15.6	
	발언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6월 18일	화	유로존	근원 CPI (YoY)	5월	2.9%	2.7%
		CPI (YoY)	5월	2.6%	2.4%	
		ZEW 경기전망지수	6월	-	47	
	미국	소매판매 (MoM)	5월	0.3%	0.0%	
		소매판매 (YoY)	5월	-	3.04%	
		소매판매_자동차, 가스 제외 (MoM)	5월	0.3%	-0.1%	
		산업 생산 (MoM)	5월	0.4%	0.0%	
	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6월	4.35%	4.35%	
	발언	리치몬드, 델러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시카고	시카고 연은 총재, 쿠글러 미연준 이사				
	행사	618 쇼핑축제				
실적	오라클, 레나					
6월 19일	수	유로존	경상수지		-	35.8B
		미국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		45	45
	휴장	미국(노예해방일)				
6월 20일	목	미국	건축허가건수 (MoM)	5월	1.4%	-3.0%
		주택착공건수 (MoM)	5월	1.1%	5.7%	
		경상수지	1분기	-206.1B	-194.8B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6월	4.5	4.5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6월		-14.3	
	발언	리치몬드 연은 총재				
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6월 21일	금	한국	PPI (MoM)	5월	-	0.3%
		PPI (YoY)	5월	-	1.8%	
	유로존	제조업 PMI	6월	-	47.3	
		서비스 PMI	6월	-	53.2	
	미국	제조업 PMI	6월	51	51.3	
		서비스 PMI	6월	53.4	54.8	
		기존주택판매 (MoM)	5월	-1.0%	-1.9%	
		선행지수 (MoM)	5월	-0.3%	-0.6%	
	실적	카맥스				
	파생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과 중국의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지표, 2) 시카고 연은, 필라델피아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 발언, 3) RBA, BOE 통화정책회의, 4) 오라클 등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실적, 5) 유럽의 정치 노이즈 등에 영향 받을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700~2,820pt).

14일(금) 미국 증시는 어도비(+14.5%) 호실적으로 인한 AI 주 강세에도, 연준 위원들의 보수적 발언,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유럽 증시 약세, 미국 소비심리 부진 등이 차익실현 물량으로 이어지며 혼조세 마감(다우 -0.15%, S&P500 -0.04%, 나스닥 +0.12%).

5월 CPI, 6월 FOMC를 중립 이상으로 치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매크로 상 최악의 상황(ex: 연준 금리 동결 or 인상)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옮기는 중. 하지만 클리블랜드, 시카고 연은 총재 등 매파 위원들이 5월 인플레이 둔화를 반기면서도 여전히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 이날 증시에는 다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임.

더욱이, 지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내 극우 정당(RN)이 약진한 가운데, 6월 30일 조기 선거를 앞둔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도 단기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 물론 그 동안 프랑스 등 유럽 증시의 방향성이 미국, 한국 등 여타 증시의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기는 했음. 다만, (한국은 오른 게 별로 없기에 고점 부담이 미미하지만), 미국, 대만 등 신고가 경신 행진으로 단기 고점 및 속도 부담이 누적되어 있다는 증시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신경 쓰이는 부분. 결국, 이번주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발 정치 이슈 포함 금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치르면서 그 부담을 소화해 나갈 전망. 그 과정 속에서 주요국 증시 간에도 키 맞추기 성격의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주중에는 FOMC, CPI처럼 영향력이 크진 않으나, 미국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도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 미국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경기서프라이즈 지수는 6월 17일 현재 -19.9pt로 6월 초 -5pt대를 고점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 6월 FOMC에서 연준이 상향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2.1%로 유지했다는 점도 마찬가지. 올해 미국이 2% 후반 성장을 전망했던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에 비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뿐만 아니라 경기 하방 리스크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며, 주식시장도 향후 경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갈 것.

이번주에도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기하고 있음. 6월 FOMC가 종료됨에 따라 재차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연준 인사들의 5월 CPI를 반영한 인플레이션 전망 등 최근의 얼마만큼의 생각 변화가 생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이들 발언 이후 FOMC에서 점도표 1회로 제시했음에도 2회 인하로 형성된 CME Fed Watch 상 컨센서스 변화에 주목할 필요. 주중 연달아 치러질 RBA와 BOE 회의 결과도 이전보다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 이들 은행도 시간의 문제일 뿐 금리 인하에 대한 니즈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연준에게도 Peer Pressure를 가하는 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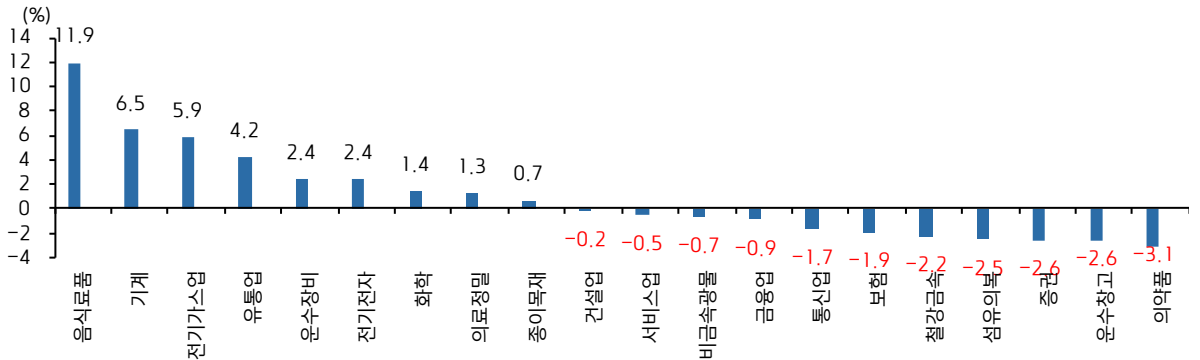
주식시장 내에서는 지난 금요일 장중 약 1개월만에 8만원대에 도달하면서 소외 현상이 해소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및 그에 따른 수급 로테이션 여부도 관건. 테마 단에서는 급등락세를 연출 중인 유틸리티, 상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테마 관련 업종들의 수급 쓸림 현상이 지속될 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758.42	0.1	1.3	1.0	3.9
대형주	2,741.36	0.1	1.3	1.0	3.4
중형주	3,068.66	0.0	1.0	1.9	10.1
소형주	2,415.40	0.4	1.7	1.2	5.6
코스피200	376.00	0.3	1.2	1.3	5.0
코스닥	862.19	-1.1	-0.5	0.0	-0.5
대형주	2,003.08	-1.3	-2.0	0.4	-1.3
중형주	770.95	-1.0	1.7	2.2	7.9
소형주	2,777.94	-0.5	0.0	-2.2	-1.0
코스닥150	1,386.61	-1.3	-2.1	-0.8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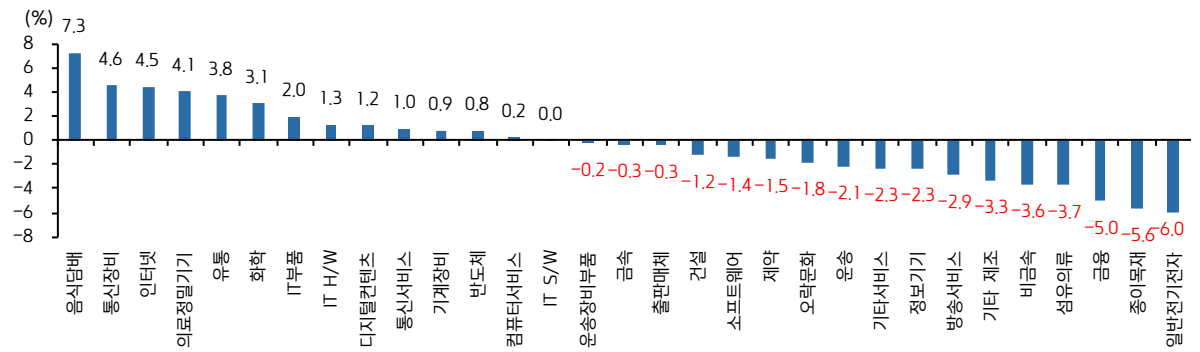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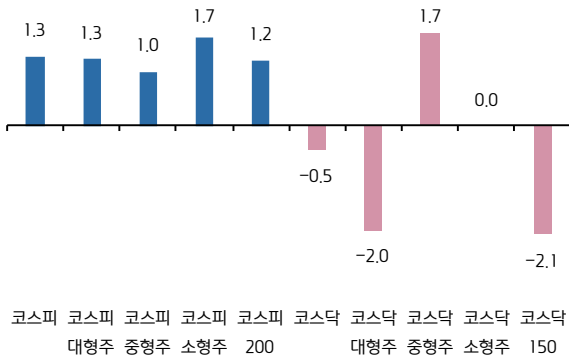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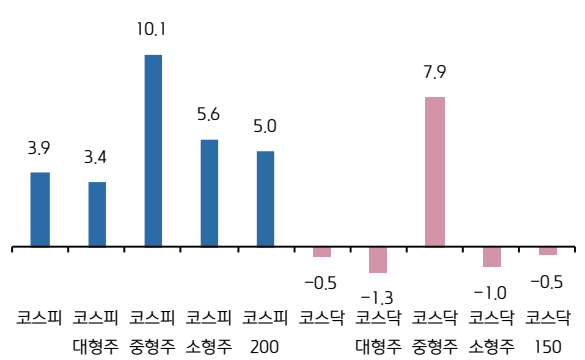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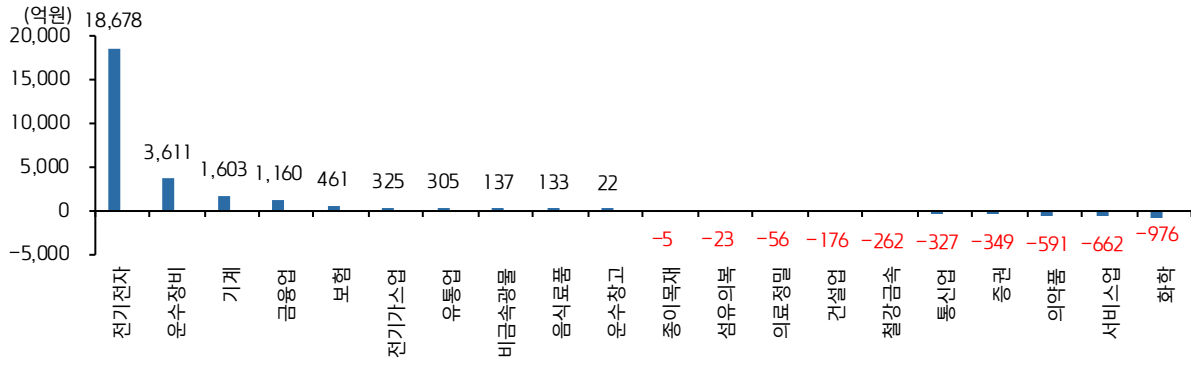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4,751,947	16,659	3.0
2	000660	SK 하이닉스	1,608,885	7,279	6.5
3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816,660	912	-2.8
4	005380	현대차	561,235	2,777	1.1
5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524,552	479	-1.7
6	000270	기아	490,626	1,626	1.3
7	068270	셀트리온	397,966	1,764	-4.0
8	105560	KB 금융	326,440	948	1.6
9	005490	POSCO 홀딩스	321,371	1,460	-1.7
10	035420	NAVER	275,932	1,359	-3.1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247540	에코프로비엠	196,092	1,516	-9.7
2	196170	알테오젠	140,844	4,866	-1.5
3	086520	에코프로	132,340	1,461	-7.5
4	028300	HLB	81,517	1,545	4.5
5	022100	포스코 DX	63,703	997	6.5
6	066970	엘앤에프	58,543	873	-2.1
7	348370	엔캠	57,493	866	6.3
8	058470	리노공업	39,783	606	-2.1
9	068760	셀트리온제약	38,851	145	-0.3
10	214150	클래시스	33,664	30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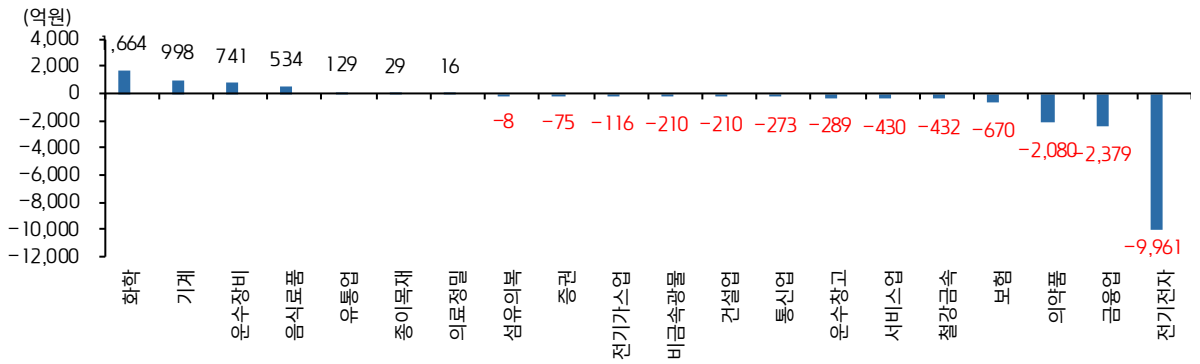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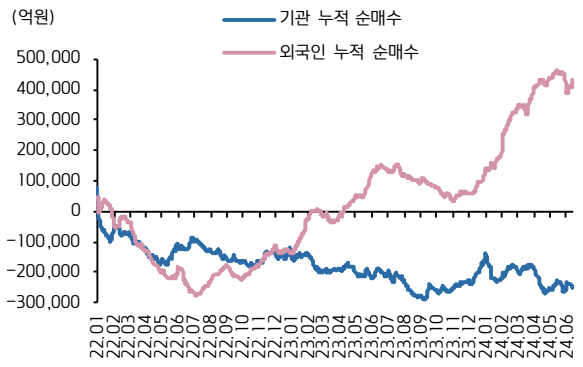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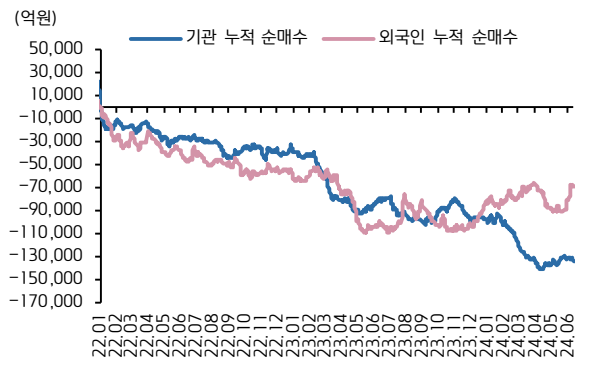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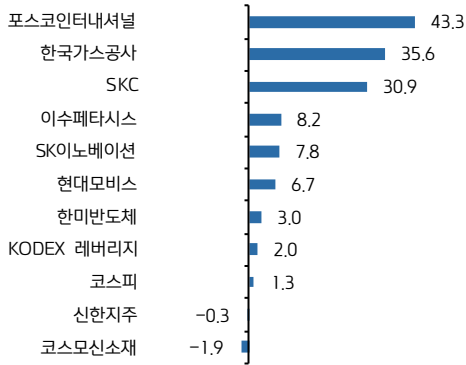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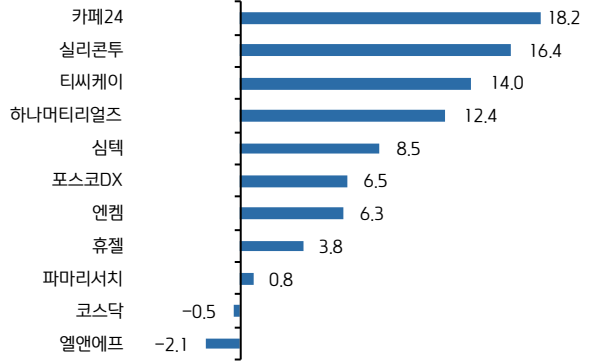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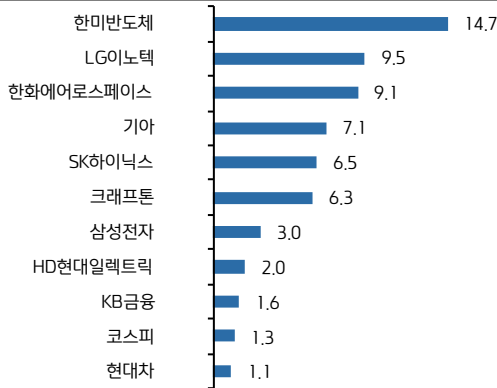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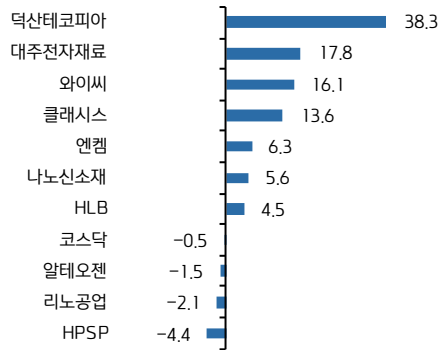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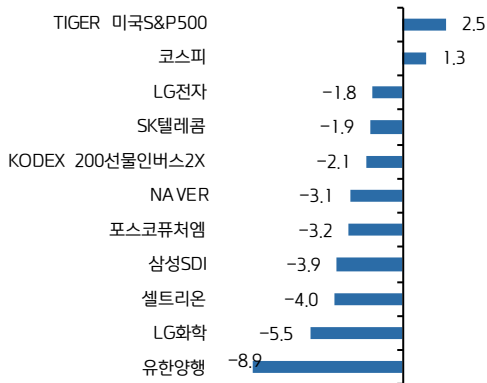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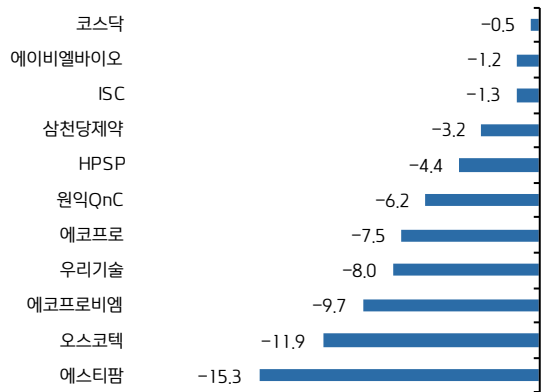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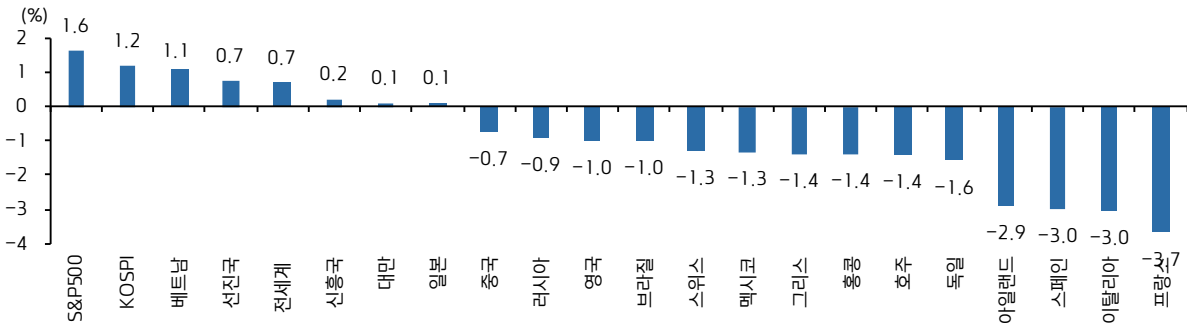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유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유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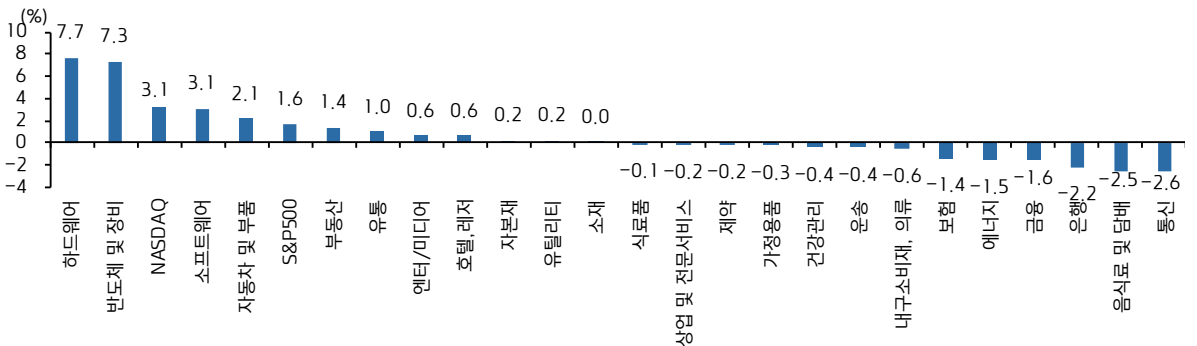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